

마약사용자들, 에이즈 감염 위험

이한덕 | 1990. 2. 경희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 전공
 1991. 9. 의약계 전문지 '일간보사' 입사
 1992. 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획조사팀장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 나라의 HIV 총 감염자수가 2001년 6월말 현재 1,439명이며, 200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159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23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으며 30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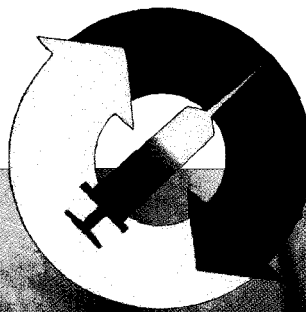
특히 새로 감염된 159명 중 2명이 사상 처음으로 약물 주사로 인한 감염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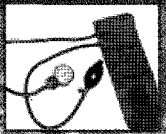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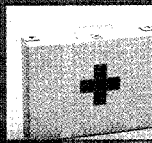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마약의 주사 사용과 AIDS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UNDCP(유엔마약통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태국에서 AIDS가 헤로인 남용집단에서 처음 관찰되었던 1987년 이래 헤로인 주사자의 HIV 감염이 급속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감염율이 40~50%에 달하고 있다고 하며, 미얀마는 마약남용자의 HIV 감염사례가

1989년 처음 기록한 이래 1991년까지 HIV보균자의 77%가 마약남용자라고 한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마약남용이 HIV 감염의 2%를 차지하였으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28%로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은 HIV 감염사례의 80% 이상이 마약 주사와 관련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마약의 주사 사용으로 인한 HIV 감염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약 중에서도 헤로인과 HIV 감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헤로인의 약리적 효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헤로인 중독자의 특징으로는 졸음, 불결함, 태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상실 등이 있으며, 특히 헤로인은 가장 강력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보인다.





결국 헤로인의 약리적 효과로 사용자는 점점 더 헤로인에 중독 되고, 중독 되면 필수룩 게으르고 불결하고 태만해지게 되어 주사기를 돌려가며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다.(이런 중독자들에게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봄을 팔거나 혼숙 등 난잡한 성생활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곤궁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주사기를 돌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HIV가 감염되고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등에서는 ATS(암페타민형 각성제, 필로폰도 이에 속함)의 사용과 HIV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정맥주사보다는 흡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마약류사용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보고된 바는 없지만 마약류 사범통계와 청소년(유해불질 사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밀반입 마약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약 20~4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의 본드 등 환각흡입불질 사용자를 제외한 마약류 관련자는 마약류 사범수의 5-10배를 곱한 5만~10만명 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도 마약류 사범 10,304명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7,066명으로 68.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사용자가 71.5%인 5,050명이므로 약 3~5만명 정도가 ATS계통의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이 사용자들이 주로 주사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HIV 감염과의 연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높지는 않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첫째, ATS는 헤로인과 다른 약리적 효과를 갖고 있다. 둘째로는 필로폰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비싸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밖의 이유로는 일회용 주사기를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 등이다.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퇴치운동과 AIDS퇴치운동의 연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마약류 예방운동, 특히 교육활동에서 마약류 사용과 HIV 감염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할 것이며 에이즈 예방운동에서도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함께 경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HIV 감염과 가장 밀접한 마약인 헤로인이 1997년 이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소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최근 주사제인 염산날부린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마약류로 규제하게 된 사례와 주사제를 특

히 좋아하는 국민 의식, 미국의 마약문화 유입으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일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마약사용을 자아 의식의 확대나 자유라고 생각하는 흐름, 그리고 인터넷과 택배 등으로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마약밀반입 집단들의 지속적인 밀반입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처음으로 약물 주사로 인한 HIV 감염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곧 마약은 마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퇴치운동과 AIDS퇴치운동의 연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마약류 예방운동, 특히 교육활동에서 마약류 사용과 HIV 감염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할 것이며 에이즈 예방운동에서도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함께 경고해야 할 것이다.